

Ⅲ. 유형별 문항분석

1. 인문 I

■ 제시문 소개

제시문 [가]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 수록된 한비자의 통치론에 관한 글이다. 한비자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중 법가의 대표적 철학자로서 군주의 처신과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을 논하였다. (출처: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2023, 242쪽)

제시문 [나]는 『독서』(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전봉준·손화중·김개남의 『무장포고문茂長布告文』이다. 동학 농민군이 고창의 무장현에서 봉기할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 지도부가 발표한 글로서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출처: 『독서』, 천재교육(박영목 외), 2019, 58~59쪽)

제시문 [다]는 『2022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서 발췌한 것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라고 불리는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다루고 있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인 것이라 해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출처: 『2022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2021, 65쪽)

제시문 [라]는 전상국의 소설 「우상의 눈물」에서 발췌한 글이며,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발췌 부분에서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표를 통제하기 위해 서술자 ‘나’ (유대)에게 기표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출처: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EBS, 2023, 38~40쪽)

제시문 [마]는 『윤리와 사상』(씨마스) 교과서에 실린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발췌한 글이다. 베버는 칼뱅에 의해 청교도적 직업 윤리가 확립되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윤리와 사상』, 씨마스(박찬구 외), 2019, 129쪽)

제시문 [바]는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독서』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홉스의 사회 계약론이 이전 시대의 신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사고관으로의 이행한 결과물이며,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자연권이 상호 충돌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자연권을 인위적인 인격체인 국가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출처: 『2024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EBS, 2023, 94쪽)

제시문 [사]는 『2023학년도 수능특강 영어독해연습』에서 발췌하였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치의 주체들이 증가하는 정치영역의 전문적 지식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정치 참여권을 양도했다고 주장한다. (출처: 『2023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영어영역 영어독해연습』, EBS, 2022, 47쪽)

[문제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나타난 ‘우리’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본 문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군주론을 이해하고, 그 관점을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실제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진술로 이루어진 제시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와 상반된 주장을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논증해 내야 하는 문항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정확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가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 우수답안

제시문 [가]에서 한비자가 주장한 통치론의 핵심은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마련하고 이 법을 통해 악행을 처벌하는 법치이다.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덕치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다수의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적이면서 명시적인 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군주는 신중하고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고, 미혹에 빠지기 쉬운 모든 신하와 백성은 군주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제시문 [나]의 ‘우리’는 군신과 부자의 인륜을 강조하면서, 지금 혼란하고 위태로운 현실을 초래한 책임을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사사로운 욕심만 취하는 신하들에게 돌리고 있다. 국가에 보답하고 국가의 근본인 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신하들이 어진 군주를 보좌하지 않고 현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야의 유민들인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내걸고 보국안민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한비자의 관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우리’의 주장처럼 유교의 인륜을 앞세우는 것은 혼란기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통치 방법이다. 또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군주가 명시적인 법을 통해 악행을 저지르는 신하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때 법을 마련하고 악행을 규탄하는 역할은 오로지 군주에게만 주어진 배타적인 권리이자 의무이고, 여기에 백성이 개입하여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선불리 개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비자의 관점에서 국가의 근본은 오로지 군주이고, 신하와 백성은 통제와 교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장은 한비자의 입장에서 군주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본분에 맞지 않는 선동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농민 운동 지도부의 주장은 전통적인 덕치와 법치의 주장을 초월한 적극적인 현실 인식과 실천 노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관점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파악해야 하며, 제시문 [나]에 나타난 동학 농민 지도부의 현실 인식을 분석하여 그들의 논리를 한비자의 통치론과 대비시킬 수 있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문항에서 요구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절한 답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가]에서 한비자가 주장한 통치론의 핵심을 법치로 파악하고, 이때 법과 군주의 역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어 [나]의 ‘우리’가 주장한 유교적인 인륜과 보국안민의 명분을 정리하면서, 이를 한비자의 관점에서 ①덕치보다 효율적인 법치의 필요성, ②법치에 대한 군주의 배타적인 권리와 의무, ③이기적인 존재로서 신하와 백성은 통제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설득력 있게 비판하고 있다.

[문제2] 제시문 [다]에 나타난 롤스의 관점에서 제시문 [라]에 나타난 ‘학급’이라는 사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시오. [30점]

■ 출제의도

제시문 [다]는 사회의 정의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다룬 글이며,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학습을 통해 위선적이고 비가시적인 권력의 폭력을 다루고 있는 현대소설이다. 이 문항에서는 사회 정의에 대한 상이한 장르의 두 글을 읽고, 그 내용의 핵심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다]의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제시문 [라]의 인물들의 성격과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롤스의 관점을 [라]의 학급 운영 상황에 적용하여 비판할 수 있는 응용력과 분석력, 그리고 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우수답안

제시문 [다]에 따르면 롤스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이기에 소수 혹은 사회적 약자가 강자의 권력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어떠한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그는 정의의 핵심이 절차적 공정성이라고 보고,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운영해 나갈 법과 제도를 합의할 때 원초적 상황 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켰는지의 여부가 정의를 판단하는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제시문 [라]에 제시된 소설의 담임 선생님은 겉으로는 교실 내 모든 구성원들이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속해야 하며 각자가 자율적으로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적 태도를 취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서술자 ‘나’ (유대)에게 반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표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반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학급이라는 사회의 운영 방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인 롤스는 개인이 강자의 권력에 의해 주어진 정치적 권리를 침해받아서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학급을 통솔하는 담임 선생님의 경우 겉으로는 학생들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자신이 지정한 한 학생을 통해 각 학생들을 감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 롤스는 사회 운영에 있어 절차적 공정성이 정의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 학급의 경우 절차적 공정성에 입각하여 구성원들이 사회를 운영할 법과 제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담임 선생님의 위선적인 운영에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롤스의 관점에서 이 학급의 운영 방식은 개인을 자유를 존중하고 있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할 수 있다.

■ 우수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다]의 롤스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소설의 일부인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인물 및 상황적 배경을 통해 학급이라는 사회의 축소판에서 위선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답안에서는 롤스의 정의에 관한 철학적 담론을 잘 요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의 이중적이고 위선적 태도를 잘 지적하였다. 또한 롤스의 관점에 기반하여 소설 속 학급의 운영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할 수 있음을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잘 분석하였다.

[문제3-(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인간관을 대비하시오. [2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상반되는 견해를 다룬 두 글을 읽고, 서로 다른 입장을 대비하는 문제이다. 정확한 대비를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마]의 신적 세계에 종속된 인간관과 제시문 [바]의 인간 중심주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두 입장을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수답안

제시문 [마]에서 인간은 신을 찬미하고 신의 계명을 집행하며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다. 인간은 신의 계명에 따라 사회적 노동을 통해 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사회에서 행하는 직업 노동도 오로지 신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신에 의해 완벽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인간은 철저하게 신에게 종속된 피동적 존재에 다름 아니다.

제시문 [바]에서 인간은 본래 이기적 존재로 태어나며, 자기 보존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와 자발적으로 자기 보존을 도모하는 자유 의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인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본다. 한정된 자연 속에서 인간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성적 판단에 따라 권리의 양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시문 [마]에서 신에 종속된 피동적 인간관을, 제시문 [바]에서는 신과는 별개로 이기적 인간관에 기반한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에서 나타난 인간관은 뚜렷하게 대비된다.

■ 우수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제시문 [마]의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오로지 신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이며, 인간의 직업노동 자체도 이미 신을 위한 그리고 신에 의해 기획된 것임을 잘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바]에서 이기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토대로 한 인간 중심주의가 잘 정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과 관련된 입장에 대한 두 제시문 간의 상반된 입장이 잘 요약되어 있다.

[문제3-(2)] 제시문 [사]를 요약하고, 권리 양도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를 비교하시오. [20점]

■ 출제의도

이 문항은 인간의 권리 양도라는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두 글을 읽고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사]의 영어 구문과 직접 민주주의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의 이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가 지적하는 홉스의 사회 계약설이 전제하는 인간의 자연권과 국가의 역할을 비교, 설명해야 한다. 이 문항은 주체로서의 인간과 권리 양도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사실 파악 능력과 글의 논리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고를 요구한다.

■ 우수답안

제시문 [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민주주의의 핵심이 동등한 구성원들의 정치 참여와 그들이 공유한 정치영역에 두루 적용되는 일치된 가치관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변화에 따라 정치영역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되면서 구성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의 결정권을 양도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대리인으로서 전문적인 정치인들이 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구성원들은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나, 이들의 결정권 양도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권리가 어떻게 양도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런 공통 주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두 글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제시문 [바]는 사회 계약론을 통해 홉스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그들이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기 보존을 위해 부단히 다른 인간들과 싸워야 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제시문 [사]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접 민주주의를 예시로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을 대상으로 논지를 진행하며, 이들은 정치 영역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제시문 [바]는 권리 양도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피하고 비인격체인 국가의 보호 아래에서 가능한 안정적인 삶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필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사]는 정치의 주체들이 감당해야 할 참여의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로운 결정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바]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국가의 통치자인 절대 군주가 주권을 가지며 이 주권은 절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양도의 상태가 영구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시문 [사]는 결정권의 양도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된 기간을 전제한 조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우수답안 분석

본 문항에서는 주제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제시문 [바]와 제시문 [사]의 설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제시문 [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필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있고, 제시문 [바]에서 설명하고 있는 홉스의 사회 계약론과 비교함으로써 두 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 본 문항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고 있다.